

‘골프계 우영우’ 이승민,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프 등극

골프 치면서 사회성도 발달해 발달장애 2급→3급...연장전 끝 우승 “자폐성 장애 가진 사람도 현실세계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사실 알려”

자폐성 발달장애를 지니고도 프로 골프 선수로 활약하는 이승민(25)이 장애인 US오픈 초대 챔피언에 올랐다.

이승민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파인허스트 리조트 6번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펠리스 노르만(스웨덴)을 연장전 끝에 물리치고 우승했다.

노르만도 발달장애인이다.

이승민은 최종 3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3타를 줄인 노르만과 최종 합계 3언더파 213타로 연장전을 벌였다.

17, 18년 홀 2개를 합산 방식으로 치러진 연장전에서 이승민은 버디-파를 적어내 파-보기를 한 노르만을 2타차로 제쳤다.

이승민이 공식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안양 신성고 재학 때 전국체전 단체전 이후 두 번째다. 개인전 우승은 처음이다.

특히 미국골프협회(USGA)가 이번에 창설한 첫 번째 장애인 US오픈에서 초대 챔피언에 올라 의미가 더했다.

이승민은 “기쁘다. 꿈을 꾸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승민은 페어웨이 가 좁은 코스에 대비해 최근 집중적으로 드라이버 샷을 잡았던 게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자평했다.

이승민은 이번 대회에서 유일하게 3라운드 내내 언더파 스코어를 냈다.

올해 처음 열린 장애인 US오픈 남자부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장애인 골퍼 78명이 참가했다.

발달장애 3급인 이승민은 2017년 한국프로골프(KPGA)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고, 지금까지 세 차례 프로 대회에서 컷을 통과했다.

초등학교 때 아이스하키를 했던 이승민은 너무 부상이 잦아 중학교 1학년 때 골프에 입문했다.

공이 날아가는 것을 좋아한 이승민은 프로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고, 2017년 다섯 번의 도전 끝에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프로 선발전에 합격했다.

자폐성 발달장애를 지닌 이승민에게 골프는 세상과 소통하는 통로다.

발달장애 2급이었던 이승민은 골프를 치면서 사회성이 발달해 3급으로 조정되기도 했다. 특히 타

인과 눈도 마주치지 않던 이승민은 골프 선수로 뛰면서 언어 구사와 소통 능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이날 우승 기자회견에서 이승민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여섯 번이나 되뇌었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이승민을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하는 어머니 박씨(56)는 “프로 대회에 여러 차례 초청해줘서 큰 무대에서 날새, 어려운 코스, 상황들을 경험하며 많이 성장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큰 대회에서도 흔들림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초청해주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자폐성 장애인에 관심이 높아졌다. 미국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분이 승민이를 보면서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 잘 적응할 수 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3일 귀국하는 이승민은 KPGA 스피릿투어 예선에 계속 도전하고 정규투어 대회도 초청이 오면 언제든지 출전하겠다는 각오다. 또 가을에 치르는 KPGA코리아투어 웰리파이팅토너먼트와 아시아프로골프투어 등 뛴 수 있는 무대는 다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발달 장애 프로 골프 선수 이승민(25)이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 US오픈 우승 트로피를 들고 웃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근대5종 전용태, 세계선수권 개인전 첫 우승 도전

24~31일 이집트서 열려

한국 근대5종의 간판 전용태(27·광주시청)가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첫 우승 도전에 나선다.

전용태는 오는 24~31일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열리는 국제근대5종연맹(UIPM) 2022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에서 남자부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근대5종에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긴 전용태는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도 기세를 이어왔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나선 대회인 5월 불가리아 알베나 월드컵 3차 대회에서 ‘역대 최고점’ 기록(1천537점)을 세우며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달 월드컵 파이널에서도 정상에 올라 2차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패조의 컨디션 속에 남자부 세계랭킹 1위를 탈환한 뒤 이번 대회에 나서는 전용태는 항저우 아

시안게임 1년 연기로 타이틀 방어전이 미뤄진 아쉬움을 ‘월드 챔피언’ 등극으로 풀겠다는 각오다.

현재까지 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의 동메달이 전용태의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최고 성적이다. 단체전에선 2019년 대회 때 정진화, 이지훈(이상 LH)과 우승을 합작한 바 있다.

역대 근대5종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선수의 개인전 금메달은 2017년 카이로 대회의 정진화가 유일하다. 정진화 역시 이번 대회에도 출전해 5년 만의 정상 탈환을 노리며, 이지훈, 서창원(전남도정)이 함께 남자부 경기에 나선다.

서창원은 지난달 월드컵 파이널에서 전용태에 이어 2위에 올라 첫 월드컵 개인전 메달을 획득한 뒤 이번 대회에 나선다.

여자부에는 김세희(BNK저축은행), 김선우(경기도청), 성승민(대구광역시청), 장하은(경기체육)이 출전한다.



전용태

광주 선수단 전국수영선수권 선전

강조민지 금메달...서은준·정유은·노우탁 등 은메달

광주 선수단이 ‘제1회 광주 전국수영선수권대회 및 광주 전국마스터즈대회’에서 선전하고 있다.

2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강조민지(남부대)는 지난 19일 광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자유형 50m에서 김태리(동서울대, 30초18)를 따돌리고 27초8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강조민지는 지난해 어깨 부상이 있었지만 재활에 성공,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서은준은 남대부 자유형 50m에서 23초67로, 이호은(이상 남부대)은 자유형 1,500m에서 16분 26초49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부대는 계영 400m 단체전에서 3분33초03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추가했다.

정유은(광주시체육회)은 여일반 평영 50m에



강조민지(경영) 류민재(다이빙) 이재경(다이빙)

서 32초77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노우탁(남부대)도 남대부 평영 50m에서 29초68로 은메달을 따냈다.

류민재, 이재경(이상 광주시체육회)는 다이빙 남일반 3m스프링에서 344.55점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정다현(668점·대전시체육회)은 234.85점, 박하람(이상 광주시체육회)은 217.15점으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추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최강’ 스롱에 대역전승 김민아 LPBA 첫 우승

김민아(NH농협카드)가 ‘LPBA 최강’ 스롱 피아비(블루원리조트)를 꺾고 프로 통산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민아는 20일 밤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하나카드 PBA-LPBA 챔피언십 LPBA 결승에서 스롱과 폴세트 접전을 벌인 끝에 4-3(10-11 11-3 4-11 7-11 11-5 11-4 9-4)으로 대역전승을 따냈다.

아마추어 랭킹 1위 출신인 김민아는 2020년 8월 프로로 전향한 뒤 14번의 LPBA 투어 출전 끝에 처음으로 정상에 올라 2천만원의 우승 상금을 거머쥐었다.

경기 초반 분위기는 스롱이 주도했다.

세트 점수 1-1로 맞선 가운데 4번째 우승에 도전한 스롱이 먼저 치고 나갔다.



20일 열린 하나카드 L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김민아가 우승하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롱은 7-4로 앞선 상황에서 벅샷 두 번으로 4점을 쌓아 3세트를 따냈고, 4세트도 하이런 7점을 묶어 6이닝 만에 가져가면서 우승까지 한 세트만을 남겨뒀다.

이때부터 김민아의 대역전극이 시작됐다.

김민아는 5세트에서 6이닝 동안 공타 없이 11점

을 채워 한 세트를 만회한 데 이어, 6세트도 4이닝부터 6이닝까지 9점을 몰아치면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최종 7세트에서는 4-4로 팽팽히 맞선 가운데 5쿠션을 이용한 벅샷으로 성류 앞서갔고, 7이닝에서 옆돌리기로 마지막 득점에 성공해 대역전극을 완성했다.

안산, 양궁월드컵 리커브 예선 1위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 동메달

한국 여자 컴파운드 양궁 대표팀이 2022 현대양궁월드컵 4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김윤희, 소채원(이상 현대모비스) 오유현(전북도청)은 20일(현지시간) 콜롬비아 메데인에서 열린 대회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멕시코를 234-232로 제압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열린 2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올 시즌 월드컵 단체전에서 2번째 메달을 수확했다.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앞서 준결승전에서는 영국에 232-233으로 졌다.

남자 컴파운드 대표팀의 최용희, 김종호(이상 현대제철), 강동원(대구시양궁협회)은 미국과 단

체전 동메달 결정전에서 234-236으로 2위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리커브 대표팀은 이날 열린 예선라운드를 좋은 성적으로 마쳤다.

남자부에서는 김제덕(경북일고)과 김우진이 각각 687점, 684점을 쏘며 1, 2위에 올랐고, 오진혁(현대제철)이 674점으로 9위, 이우석(코오롱)이 672점으로 12위에 자리했다.

여자부에서는 한국 선수들이 1-3위를 휩쓸었다. ‘2020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광주여대)이 677점으로 1위, 이가현(668점·대전시체육회), 강채영(665점·현대모비스)이 차례로 2, 3위에 올랐다.

최미선(순천시청)은 665점으로 3위 강재영, 4위 카타리나 바우어(독일)와 동점을 기록했지만, 총 10점 발 수에서 뒤져 5위에 자리했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외계+인 1부
2관	미니언즈2
3관	미니언즈2, 토르: 러브 앤 썬더
4관	외계+인 1부, 범피도시 2
5관	탐간: 매버릭
6관	미니언즈2, 외계+인 1부
9관	외계+인 1부
7관	세네카를 외계+인 1부, 토르: 러브 앤 썬더,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8관	세네카를 헤어질 결심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신나는 국악여행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130회 정기연주회

일시 : 2022.07.28.(목)-30.(토)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4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7.01.(금)-31.(일)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